

## 아름다운 것들

- 윤평안

양희은 씨가 부른 <아름다운 것들>이란 노래의 가사를 보면 정작 무엇이 아름다운 거라는 건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삶도 역설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들에게 좀 더 따듯한 일 층 방을 내어주고 아내와 난 겨울엔 사용하지 않는 2 층 손님 방으로 올라가 잠을 잡니다.

바쁜 하루를 뒤로하고 식탁에 앉아 생각 몇 개 정리하고 따라 올라와보니 아내가 한기드는 창문이 침대를 먼저 차지하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어제 당부했는데 이미 잠들어버렸네요.

2 층 밧데리 히터를 틀면 온 집안 전기가 나가서 어제도 밤새 이불 두개를 덮고 바람이 목으로 들지 않도록 단디 쟁이고 잠을 청했었습니다.

잠이든 건지 잠든 척 하는 건지 모를 아내위로 두터운 이불 하나 더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사실 요새 난로에 불을 피우면서 며칠 지냈더니 가슴에 통증이 조금 느껴집니다.

아내를 향한 마음이 그래서 더 애뜻한 건 아닐까 나름 추측해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색빛깔로 더 영롱하게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어쩌면 이런 경험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우니까 이불을 덮어줄 수 있고, 더우니까 시원한 냉수 건네줄 수 있고, 아프면 안타까워 꼬옥 안고, 슬프면 함께 울어주고...

불편하고 아픈 경험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단단히 엮어주는 빛나는 상처와 장치들... 천국에서 경험하지 못할 아픔이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들 말입니다.

크르그즈스탄의 겨울 밤 전기가 나가고 침대에 이불하나 더 깔고 겨울 이불 덮고 자는 아내에게 이불 하나 더 덮어주며 느끼는 감정과 경험은 천국에서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찬란한 희노애락의 아름다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실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잊어도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보시기 좋게 지으신  
분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가르치셨으니까요.

천국에서 이런 류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으시고 재현하실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것들] 양희은

꽃 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빛 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음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음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음 어디로 가야 하나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음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음 고요함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음 이들을 데려갈까

...

그는...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네요.

....

키국에서 소식 전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